

고전 논변의 교육적 재발견

엄훈 청주교육대학교 부교수

* 이 논문은 2011년 청주교육대학교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CJE2011J018).

- I. 고전 교육의 빈자리, 고전 논변
- II.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고전 논변
- III. 고전 논변의 교육적 지평
- IV. 결어

I. 고전 교육의 빈자리, 고전 논변

1. 그들은 무엇을 읽고 어떻게 썼는가?

고종 13년(1876년), 면암(勉庵) 최익현은 광화문 앞에 거적때기를 깔고 도끼를 짊어지고 병자수호조약을 반대하는 소를 올린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진실로 부끄러운 얼굴로 구차하게 살며 같이 짝이 되기를 원치 않으니 바라건대 이 도끼로 신에게 죽음을 주시어 지하에 들어가 두 성왕을 모시게 해 주신다면 또한 조정의 큰 은혜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토로한다.

그런데 최익현의 소를 잘 뜯어보면 그가 선조 때의 선비인 중봉(重峯) 조헌의 소(請絕倭使三疏)를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짜임까지도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議疏)의 서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삼가 아뢰입니다. 선정(先正) 문열공(文烈公) 신 조헌(趙憲)이 일을 말한 것으로써

길주(吉州)로 귀양을 가는데, 영동역(嶺東驛)에서 왜인(倭人)들의 사단이 크게 우려되는 것이 있음을 듣고 다시 피끓는 소를 진달(陳達)하기를 ‘형(荊) 땅 사람이 세 번 발꿈치가 잘리는 형벌에도 응징되지 않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옥(玉)이기 때문이요, 장준(張浚)이 귀양살이에서 열 번이나 상소를 쉬지 않고 올린 것은 원하는 바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조현이 동서로 당(黨)이 나뉘었을 때와 풍신수길(豐臣秀吉)이 화친을 청하던 날을 당해서 깊은 근심과 원대한 염려를 갖고 충성을 다하고 말을 끝까지 하다가 온 조정이 원수같이 미워함을 자초하여 죄를 짓게 되어 유배를 가서 역졸(驛卒)의 일을 행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조현은 의당 그 일에 징계를 받았으니 입을 다물고 붓을 달아매고 월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 보듯이 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의리를 다하고 충성을 바치는 마음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았으니, 백 세 후에 그의 상소를 읽고 그 시대를 논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며 눈물을 뿌리게 합니다.

지금 신의 이름이 죄적(罪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삼가 성자께서 신이 다른 마음이 없음을 살피시고 특별히 관대하게 처분하여 안치(安置)시켰다가 고향으로 돌려보내 편하게 있으면서 늙은 아버지를 공양(供養)하도록 하였으니, 귀양살이와 비교하면 일의 본체에 있어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적국(賊國)의 배가 바다에 들어와 성상께서 근심하는 때를 당하니, 신은 구구한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비록 성상의 좌우에 있는 여러 대부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는 처지에 있으나, 어찌 차마 입을 다물어 우리 성명을 저버리고 또 분마음을 저버려 선정(先正)의 죄인이 되겠습니까? (하락)

- 면암집,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최익현의 상소는 조현의 소¹를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옛 사례를 들어

1 “신이 요드려 들건대 형나라 사람이 세 차례나 월형을 받고도 후회하지 않은 것은 그 안고 있는 바가 옥이기 때문이며 장준이 적소에서 열 번이나 상소하고도 그치지 아니함은 그의 품은 바가 충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이 전후의 사정을 진술하여 아뢴 바가 비록 어리석고 망령되으나 이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가지로 통분할 일이온데 요로

자신의 주장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현재 자신의 처지가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을 당하여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지의 흐름까지도 조현의 소를 모방하고 있다. 또한 조현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의식적으로 비교하고 있으며 도끼를 지고 쥔 앞에 엎드려 자신의 말이 틀리거든 자신을 쳐 죽이라는 퍼포먼스까지도 조현의 사례를 따르고 있다.² 최익현의 상소는 260여 년 전에 일본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던 조현의 상소에 대한 오마주였던 것이다.

도끼를 지고 쥔 앞에 엎드려 상소하는 지부상소(持斧上疏)는 고려말의 문신이었던 우탁의 사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사열전에 따르면 우탁은 감찰규정으로 있을 때 충선왕이 부왕의 후궁이었던 숙창원비와 간음하자 흰 옷을 입고 도끼를 가지고 거적자리를 메고 대궐에 나아가 상소하였다. 근신 이 소장을 펴보고는 감히 읽지 못하자 우탁이 큰 소리로 “그대는 가까운 신하가 되어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올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만나게 하니 그대는 그 죄를 아는가?” 하고 질책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었고, 임금도 부끄러워하였다고 한다.

우탁 - 조현 - 최익현으로 이어지는 상소 행위의 유사성은 고전 읽기

에 있는 사람이 가리어 두고 혹시 성상께서 깨달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이 죽지 아니함은 또한 하늘이 덮어주신 은혜를 입음이니 입을 닫고 명을 편케하여 시사의 끝마침을 보는 것만이 의에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오직 천체의 현상을 우러러 보니 형혹성이 미기성을 관통하고 남두에 들어간지 십순이 지냈으며 또 낭성이 광채가 있으니 옛 서적을 참고하면 이 모두가 병화가 있을 형상입니다. (하략)” - 조현, 청절왜사삼소(請絶倭使三疏)

- 2 조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선조 24년(1591년) 옥천에서 도끼를 짊어지고 백의(白衣)로 걸어와서 궁궐앞에서 상소를 하였다. 이때 올린 소가 청참왜사소(請斬倭使疏)이다. 비답이 없자 머리를 돌에다 찢어 피가 얼굴에 가득하여 보는 사람들도 안색이 위축되었다고 한다(신두환, 2009: 261). 최익현이 문면에서 인용하고 차용한 청절왜사삼소(請絶倭使三疏)는 선조 22년(1589년) 12월에 올린 것으로 지부복궐(持斧伏闕)을 한 청참왜사소(請斬倭使疏)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부복궐(持斧伏闕)은 일본과의 화의를 배척하는 일련의 상소 끝에 나온 행위여서 동일한 소통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를 통한 전범적 글쓰기로 설명된다. 당대의 선비들은 선대의 모범문을 널리 접하고 읽었으며 자신들의 문자 언어 생활에 전범으로 활용하였다. 실제로 조헌의 문집에는 우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소문을 찾아볼 수 있다.³ 우탁의 저서와 문집은 조선초 화란에 의해 소실되어 현재 몇 편의 단편들만 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안동문화연구소 편, 1992: 4) 그의 일화는 고려사 등에 실려 널리 읽혔으며, 조헌 당대까지는 그의 글이 전하여 읽혀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헌의 문집은 광해군 5년(1613년)에 처음 편찬되고 영조 16년(1740년) 20권 10책으로 간행되었으며, 숙종 24년(1698년) 왕명으로 다시 간행되는 등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김포문화원, 2004). 이로 보아 최익현 당대에 고려사와 조헌의 문집인 중봉집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전 텍스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는 고전 읽기에서 시작되어 고전으로 회귀하는 글쓰기였다(조희정, 2004). 고전 리터러시의 전범이 되었던 중세의 고전에는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사기(史記) 같은 경사(經史)뿐 아니라 선인들의 문집에 실린 시문(詩文)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집에 실려 있는 시문에는 중세적 공론 논변의 장에서 소통되었던 논변(論辯) 작품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⁴

3 “본시 우리나라가 군신과 부자의 도리를 지킬 줄 알게 된 것은 사서오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설총과 우탁이 소학과 가례에 대해서 강명하였으며, 이어 이색, 정몽주, 우현보가 속됨을 물리치고 고려 말기의 위급함을 바르게 하니 비로소 우리 문명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조헌, 중봉선생문집 권치삼. 변사무검논학정소, 선조 19년 병술 10월 공주제독시.

4 동문선(東文選)을 예로 들면 군왕을 상대로 소통하는 장르인 주의류(奏議類)에 속하는 작품으로 표전(表牋) 462편, 계(啓) 33편, 장(狀) 77편, 주의(奏議) 32편, 차자(劄子) 12편, 대(對) 2편, 의(議) 7편, 소(疏) 123편이 실려 있다. 김종철(1999) 참조. 동문선은 성종대에 서거정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역대 시문 중 전범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 실은 것이므로 조선 초에 공론 논변 작품이 고전의 범주로 확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전(正典)의 전환(轉換)과 고전 교육의 빈자리

고전 논변은 근대 이전에 중세적 공론 영역(public sphere)에서 소통되
있던 논증적 대화인 중세적 공론 논변 중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을
말한다. 고전 논변은 중세적 공론 논변과 같은 전문적인 학술어를 대신하여
근대 이전의 논변 작품 중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들을 포괄적으로 지칭
하는 교육적 용어로 제안되었다(엄훈, 2005).

중세적 공론 영역은 국왕을 정점으로 다양한 논증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장이었다. 실제로 그러한 대화의 전형이라 할 언관과 임금 간의
논증적 대화는 공론 영역의 소장(消長)과 더불어 발전하고 변화하고 소멸하
는 과정을 거쳤다(엄훈, 2005). 조선시대 공론 영역에서 이루어진 논증적 대
화가 장르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음은 그 대화가 전통적인 설득 장르들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하행 문체, 즉 상소(上疏), 상차자(上劄子), 계(啓), 의
(議), 비답(批答), 전교(傳敎) 등에 의해 실현되었던 데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공론 영역의 논증적 대화에서 사용된 이러한 장르들은 논변
류(論辯類), 주의류(奏議類), 조령류(詔令類)라는 전통적인 문체류에 망라되
어 있다(심경호, 1998; 엄훈, 2005).

논변은 한자문화권에서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텍스트의 유형을 아우르는 문체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논변
은 전통적인 논증 장르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은 아니었으나 논변이라는 용
어의 대중성과 이 용어가 지니고 있는 개념적 포괄성으로 하여 제반 논증 장
르들을 아우르는 거대 장르의 명칭으로 제안되었다(엄훈, 2002; 2005).

논변을 논증적 대화의 제 양식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할 때 조선시대 공
론 논변은 그 속에서 사용된 제반 미시적 논증 장르들을 포괄하는 범주로 이
해된다. 그런데 조선 시대 공론 논변은 단순한 범주 명칭을 넘어 거시적 논
증 장르로 정의될 만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공론 영역이라는 특정한
의사소통의 장에서 이들 미시적 논증 장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장르 통합체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상행 장르에 해당하는 상소(上疏)와 그에 대한 답변인 비답(批答)은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소통 행위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결합 양상은 공론 논변을 일종의 거시적 논증 장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엄훈, 2005: 17).

중세적 공론 논변은 당대인들에게 성리학적 인간상 실현의 수단이었던 때문에 공론 논변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독서의 대상과 글쓰기의 전범이 되었다. 그리고 문집을 통한 전범 읽기의 과정에서 당대인들 사이에 정전으로 자리매김된 공론 논변 작품들이 등장했다.⁵

당대인에게 중요한 전범이 되었던 고전 논변은 근대 계몽기를 거치면서 와해되었다. 사서삼경과 사기 등의 경사(經史)와 선현들의 문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중세의 정전이 민족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전으로 교체되었던 것이다(김종철, 2005).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중세의 고전은 근대 계몽기를 거치면서 일부는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고 일부는 재조명되어 계승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작품들이 고전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 근대 이전의 작품 중 현대의 고전으로 조명되고 계승된 것들은 민족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고 망각되었다. 고전 논변은 정전 교체의 시기에 정전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잊혀진 대표적인 장르이다. 반면 춘향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전에는 문학교육의 정전으로 인정되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정전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김종철, 2005).

5 필자는 그 한 사례를 홍명희의 『임격정』에서 발견하였다. 임격정에는 명종 때의 여러 선비들의 일화가 등장하는데 그중 남명 조식이 단성 현감을 사직하는 상소에서 “자전은 궁중의 한 과부요, 전하는 선왕의 한 아들일 뿐”이라고 한 표현을 놓고 당시의 세도가 윤원형과 다른 대신들이 임금 앞에서 논란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일제시대이긴 하나 전통적인 명문가의 후손인 홍명희가 ‘을묘사직소’ 혹은 ‘단성소’로 알려진 공론 논변의 고전적 작품과 그 작품에 딸린 일화를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작품을 읽는 당대의 독자들 또한 이런 일화가 낯설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율곡 이이의 ‘만언소’, 남명 조식의 ‘을묘사직소’와 ‘무진봉사’ 등은 오늘날까지도 명문으로 거론된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독서와 문필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고전 논변이 현대의 정전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회와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거역할 수 없는 조류인가, 아니면 진지한 성찰이 결여된 채 이루어진 과거의 언어문화에 대한 과도한 탈가치화의 결과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정전 교체가 나타난 근대 계몽기 이후의 변화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정전에 대한 논의는 문학 정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⁶ 근대 계몽기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전 정전의 교체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⁷

근대 계몽기에 이루어진 정전의 교체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밑바탕에는 중화(中華)로부터 민족(民族)으로, 동아시아 공통의 문어인 한문으로부터 민족 문자인 국문으로, 군왕을 중심으로 한 중세적 공론 영역으로부터 대중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기초한 근대

6 최근 십수 년간 이루어진 문학 정전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훑어보면 지금까지의 정전 비판이 작가 혹은 작품 차원의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문학 정전 논의는 1996-7년경 영미의 정전 논의가 영문학계에 전해지면서 영문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어 한국 문학계에 그 파장을 미치게 된다.(윤여탁, 2008). 정전이라는 개념을 앞세운 논의는 아니지만 한국 문학계에서는 순수 문학, 저항 문학, 프로 문학, 민중 문학 등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논의의 상징적인 결과로 1988년 월북 및 남북 작가들의 작품 해금이 이루어졌다(윤여탁, 2008). 한국에서의 정전 논의는 그 수준과 관점의 면에서 1970년대 이후 인종, 성, 계급을 중심으로 영미에서 이루어진 정전 논쟁의 과정과 유사하다(송무, 1997). 즉, 정전 논의의 차원이 작품 차원에서 전개됨으로써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문학 교육의 패러다임 안에서 그 패러다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7 최근 이루어진 유영옥(2009)의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영옥(2009)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에 이루어진 정전의 근본적인 교체 현상에 주목하면서 중세를 대표하던 요순 담론이 근대 계몽기에 영웅 담론으로 교체되면서 정전을 결정하는 기치 기준 자체가 변화하였음을 논하였다. 유영옥(2009)의 연구는 정전 교체 현상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 공론 영역으로의 전환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근대화된 일본을 선두로 한 서구 문명의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정전의 거대한 전환은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초로 한 장르 차원의 정전 재구성을 불러왔다. 이러한 변화를 최근의 장르 논의의 중심 개념인 장르 내적인 정전 경쟁(canon competition) 혹은 정전 재구성(canon reconstruction)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전 형성의 기본 틀의 변화를 포착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과학의 근본적인 이론 체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 토마스 쿤(1962)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개념에 기초하여 정전의 전환(canon shift)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근대 계몽기에 이루어진 중세적 정전으로부터 근대적 정전으로의 전환은 급격한 사회 변동과 이에 따른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유영옥(2009)은 ‘성군’에서 ‘영웅’으로라는 키워드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전의 전환기는 서구 열강의 침략을 동반한 서구 문명의 급격한 도래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자기부정과 수용을 통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유교경전은 정전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암흑기를 거쳐 해방 이후의 정전은 민족 문학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946년에 출판된 『중등국어교본』을 보면 특히 현대 문학 중심적 경향이 두드러진다. 시, 수필, 전기문, 편지글 등 문학 작품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안창호, 김구와 같은 독립운동가의 연설문과 에디슨, 스티븐슨과 같은 미국 과학자들의 일화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민주주의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내용 단원들 및 국학자가 쓴 모범적인 설명문과 논설문 등 실용문이 제재로 선정되었다(윤여탁 외, 2006). 『중등국어교본』은 현대 문학 작품과 현대 실용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고시조 중심의 고전시가가 구색을 맞추

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우리나라의 정전의 전환 과정은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한 문사철 일체의 정전 체계로부터 현대 민족 문학 중심의 정전 체계로의 전환이었다. 민족 문학 중심의 정전 체계로 전환하면서 공고하게 수립되어 있던 중세의 철학과 역사 정전은 해체되었고,⁹ 문학 정전만이 근대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대적 정전 전환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특징은 민족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이는 근대적인 민족 국가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중세의 보편적이고 중화주의적인 세계관의 대안으로 민족주의가 자리 잡은 것을 반영한다. 중세적 정전이 해체되는 애국계몽기는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이 시대적 화두로 대두된 시기로 국민적 정체성을 일깨우고 계도하기 위해 민족주의적인 정전이 요청되고 있었다.(강상순, 2011; 유영옥, 2009)

둘째는 반중세적이라는 것이다. 『중등국어교본』의 목차에서도 드러나듯이 교과서에 고시조 몇 편과 가사 작품(농가월령가 팔월령)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이전의 작품이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특히 중세에 한문으로 기록된 우리 언어문화 자료들은 근대적 정전 체계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중세적 언어문화에 대한 과도한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중세 문화에 대한 차분한 성찰이 결여된 채 외부의 충격에 의해 이루어진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동반된 구시대에 대한 부정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어느 정도 개선되어 고전 문학이 정전의 한 축으로 부활하였지

8 『중등국어교본』 ‘상’은 53개 단원 중에 2개가 고시조이며, ‘중’은 40개 단원 중에 고시가(농가월령가)와 고시조가 각각 하나씩 있고, ‘하’는 28개 단원 중에 고시조가 하나, 그리고 조윤제가 쓴 ‘국문학의 고전’이라는 설명문이 두 단원에 걸쳐서 실려 있다. 이 교과서에서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중’에 정지용의 ‘죽음 애송시’라는 글이 실려 있는 것인데, 정지용이 애송하는 한시를 번역한 것이다. 조선어학회, 1946-47.

9 철학과 역사 영역에서 정전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 교과과 교육적 변천 과정을 살펴야 할 일이나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만,¹⁰ 우리말로 만들어져 향유된 문학 장르 이외의 작품들은 여전히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서구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반중세적이라는 특징과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작용하는 특징으로 서구의 영향으로 새롭게 형성된 장르들이 정전의 핵심이 된 것에서 이러한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사회 변동기에 과거의 장르가 사라지고 외래 문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하나 전통적인 언어문화에 대해 서구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 경향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¹

중세적 정전으로부터 근대적 정전으로의 전환에서 보이는 이러한 성격은 폭력적인 외세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쇄국과 개항, 일제 강점과 해방을 거치면서 우리의 정전은 점진적·성찰적·계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급진적·배제적·단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정전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고전 논변이 정전의 지위를 잃고 우리의 고전 교육에서 전통적인 논변 문화는 빈자리로 남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근대 계몽기 이후 이루어진 우리의 정전 전환은 불완전한 정전 전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전의 발전적 전환이란 이전

10 강상순(2011)은 1930년대에 고전소설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민족문화의 소중한 유산으로 재평가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고전소설의 정전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전소설이 1930년대를 전후하여 그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강상순(2011)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고전소설 작품이 교육 권력에 의해 정전으로 수용되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11 엄훈(2000)은 토론 교육에 남아 있는 오리엔탈리즘적 경향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논증 이론가의 한 사람인 Austin J. Freeley는 유교 사상의 영향 아래 있는 사회들에서는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고, 이러한 견해에 동조를 하듯 한국의 화법 교과서에는 우리의 토론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도 않은 채 서구에서 발달되어 온 토론 형식과 절차를 그 문화적 연원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화법 문화에 대한 연구들에서조차 한국에서의 화법 문화는 서구에서 유입되어 접목된 것이라는 시각(전영우, 1998)이 보인다.

의 정전이 지니고 있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온축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사에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진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처럼 정전의 전환 또한 과거의 정전이 지니고 있었던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계승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¹²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정전 논의는 근대적 정전 전환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작가 혹은 작품 차원의 논의에 매몰됨으로써 정전 전환 현상의 본질을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과학사자들의 논의를 빌어 설명하면 지금까지의 정전 논의는 정상과학의 발전 혹은 견고한 핵(hard core)을 둘러싼 보호대(protective belt)¹³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진보적 수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고전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계승되지 않는 한 우리의 새로운 정전은 그 견고한 핵(hard core)이 튼튼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계몽기에 시작된 우리의 정전 전환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 논변이 고전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고전

12 사실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불완전한 정전 전환의 성격은 일제 식민 통치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주제이므로 다른 자리에서 논하기로 한다.

13 견고한 핵과 보호대는 과학철학자 라카토슈가 제안한 개념. 라카토슈는 과학사의 불연속적 발전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한 연구 프로그램(패러다임과 같은 의미)이 근본적인 원리인 견고한 핵(hard core)과 수정 가능한 보조적인 가설들인 보호대(protective belt), 그리고 과학자들이 따라야 할 지침인 일련의 방법론적인 규칙(heuristic)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견고한 핵은 이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과학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따른 적극적인 연구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 라카토슈는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반증이 이루어질 때 그 반증이 직접적으로 견고한 핵을 손상시켜 이론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의 가설들이 먼저 수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보호대의 가설들로는 견고한 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이론의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Lakatos(1978) 및 장상호(1997) 참조.

논변 자체를 새롭게 조명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고전 논변의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전 논변을 새롭게 조명하는 인식의 전환은 고전 논변을 당대의 맥락, 즉 중세적 공론 영역 안에서 되살려내고 그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엄훈(2005)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고전 논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한 인식의 전환은 고전 논변의 복원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애국 계몽기에 반근대적이라는 이유로 고전 논변과 유사한 운명을 겪었던 고전소설의 예는 매우 시사적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고전 소설은 독자의 정신을 부패시키는 저급한 통속물이나 봉건적 잔재로 취급되어 당시 근대적 공론 영역을 지배하던 문화 엘리트들로부터 배척받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고전소설은 정전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강상순, 2011)

고전 논변이 고전 교육 속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고전 논변 자체의 새로운 발견과 함께 그것이 현재의 교육에서 지니는 의의와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과거에 아무리 가치 있는 작품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의 교육에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면 교육의 장에서 고전으로 취급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 논변은 중세에 통용되었던 논증 장르이며 현대에는 죽은 장르이다. 그렇다면 고전 논변은 더 이상 리터러시 실천의 전범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과거의 장르인 고전 논변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문화적 텍스트의 관점에서 고전 논변을 조명함으로써 고전 논변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¹⁴

14 고전 논변의 교육적 가치는 문화적 관점에서만 조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전 논변의 교육적 가치는 논증 교육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도 있고 역사 교육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도 있다. 예컨대 논증 교육의 관점에서 고전 논변을 조명할 경우 고전 논변 텍스트는 논증적 글쓰기의 원리를 학습하기 위한 고전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전 논

II.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고전 논변

앞에서 고전 교육의 빈자리로서의 고전 논변을 조명해 보았다. 고전 논변은 정전의 전환 과정에서 정전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지만 장르로서의 생명력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 지위 상실은 당연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대 이전 시기까지 고전 논변은 살아 있는 장르로서 리터러시 실천의 측면에서 고유한 위상을 지녀왔지만 근대 이후 중세적 공론 영역이 소멸하고 중세적 공론 논변이 더 이상 소통되지 않게 되면서 리터러시 실천의 측면에서 가치를 잃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전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내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고전을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며 ‘오늘날의 것에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김대행, 1999: 44), 전자는 내재적 가치와, 후자는 교육적 가치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고전 논변의 경우 중세의 공론 영역에서 실제로 소통되었던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것의 역사적 가치가 텍스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고전 논변을 오늘날의 논증적 대화의 직접적인 모범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는 폄하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대상의 교육적 가치는 그것이 삶의 직접적인 모델이 될 때에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삶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추 주는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때 그 교육적 가치는 빛을 발한다. 오히려 직접적인 삶의 방식(way of life)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것과 유리되어 인간의 삶의 방식을 거리를 두고 성찰하게 하는 경험이 교육에 더 가깝다. 이것이 바로 문화화와 문화 교육의 차이이다.

문화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가 역으로 인

변의 교육적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문화 텍스트’로서의 고전 논변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간을 규정한다. 마투라나와 바렐라(1987/1995)가 ‘인식의 나무’라는 그림을 통해 나무와 그것을 기어오르는 도마뱀이 일체임을 보여주었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곧 인간성 자체이다. 그렇게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낸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것이 문화화이다. 문화화가 결국 인간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교육이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도 문화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문화에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한다. 교육이 하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문화에 수동적으로 동화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보게 하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이 자신을 형성한 문화에 대하여 인식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체적인 인간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엄훈, 2006).

고전 논변은 더 이상 살아 있는 문화가 아니며 그 전통이 현대에 계승되고 있지도 않지만 앞선 시대를 지배했던 우리의 논증 문화를 증언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현재의 우리의 논증 문화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즉, ‘오늘날의 것에 모범’이 되기는 힘들지만 ‘오늘날의 것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전 논변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중세에 고전 논변이 지니고 있었던 교육적 가치가 전범으로서의 가치였다면 현대에 고전 논변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는 그것이 지닌 문화적 가치이다. 고전 논변은 본받고 모방해야 할 전범으로서가 아니라 당대의 논증 문화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문화적 텍스트로 읽혀야 하는 것이다.

문화적 텍스트(cultural text)는 문화 교육의 소재로서 문화 읽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말한다. 문화적 텍스트에 관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 분야(이기성, 2009)나 영문학 분야(서용득, 2010)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분명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서용득(2010)은 문화 개념을 타일러의 관점에 따라 ‘삶의 방식’(way of life)으로 정의하고 이 관점에 따라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정』을 문화 텍스트로 읽어내고 있다.

이기성(2009)은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하나의 주제로 ‘분단’을 설정하고 분단의 문화를 읽어내기 위한 문화 텍스트의 구성 방안을 논하고 있다. 이기성(2009)의 문화 텍스트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짜여진 영화와 비평, 문학 작품, 그림, 음악 등을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적 텍스트를 문화 읽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 폭넓게 정의하되, 타일러식의 ‘복합적 총체’로서의 문화 관점이 아니라 기어츠가 해석적 문화 이론에서 정의한 문화 개념에서 출발한다. 기어츠는 인간을 자신이 뽑아낸 의미의 그물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거미와 같은 존재로 파악했던 막스 베버를 따라 문화를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의 그물로 보았다(기어츠, 1973/1998).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중층적인 해석의 대상이 된다. 하나의 문화적 행위는 여러 개의 층이 겹쳐져 있는 양과 겹칠처럼 중층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의 의미 해석의 층위가 가능하려면 그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문화적 의미구조가 존재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의 해석은 카메라가 대상을 포착하여 기록하듯이 어떤 행위를 기록하는 현상적 기술(thin description)과 특정한 문화적 의미구조에 근거하여 그 행위의 의미를 기술하는 중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의미구조를 틀로 삼아 텍스트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읽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텍스트를 중층적으로 읽어 내기 위해서는 문화적 의미구조의 발견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텍스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텍스트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다. 문화적 텍스트는 기본 텍스트와 함께 그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포착해 낼 수 있는 문화적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문화적 관점을 체화하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문화적 독자이다.

문제는 텍스트를 접하는 모든 독자가 그 텍스트의 의미를 읽어 내는 문화적 관점을 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문화적 독자에는 높은 수준에 이른 고급 독자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초급 독자가 있다. 초

급 독자는 고급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고급 독자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초보 독자는 어떻게 문화적 관점을 획득하여 고급 독자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초보 독자와 고급 독자가 문화적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할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른 아닌 문화적 텍스트 읽기를 통한 교육 활동이다.

문화적 텍스트 읽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맥락의 재구성, 관점의 재구성, 독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영화와 같은 현대의 문화적 텍스트를 읽는 독자라면 이러한 조건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독자는 영화의 장르 관습에 익숙하며 자신이 살아가는 다층적인 생활세계의 한 입장에서 영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소통하면 된다. 하지만 대상 텍스트가 과거의 텍스트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것도 제도와 관습과 관념이 전혀 이질적인 중세의 공론 영역의 텍스트라면 문화적 텍스트 읽기의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고전 논변 텍스트가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그 텍스트가 살아 있는 장르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되던 다층적인 맥락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고전 논변 텍스트가 문화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지 쌓인 고문서 저장실로부터 끌어내어 그것이 소통되던 생생한 문화적 맥락 속에 되살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전 논변 텍스트가 문화적 텍스트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언어 자체가 단순한 기록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적 프레임¹⁵ 안에서 소통되

15 인간의 문화에는 수많은 상황적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평상적인 배경과 상황에는 인사, 일, 식사, 매배, 다툼, 지배, 연애, 통학, 요리, 접대, 여가 따위의 행위가 있다. 상황적 프레임은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실체로서 분석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실행가능한 문화의 최소 단위이다. 이 프레임은 언어적, 동작적, 근접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물질적, 인격적 요소를 비롯하여 여러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Hall, 1976).

프레임이란 용어는 Bateson이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프레임을 설명하는 Bateson의 고전적인 예를 들면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가 자신을 무는 것이 놀이와 싸움의 프레임 중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던 살아 있는 언어, 즉 상황 언어(situational dialect)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황 언어’는 말이 상황에 종속되어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는 그에 합치되는 특수한 방언(dialect)이 사용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상황 언어는 참여자의 성격, 행동의 패턴, 시간과 공간, 물질적 부속물 등과 더불어 상황적 프레임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고전 논변 텍스트를 상황 언어로 전환시킨다는 말은 고전 논변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며, 상황적 프레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적 프레임이 작동하던 배경이 되는 의사소통의 장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계를 엄훈(2005:48-49)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그림으로 표상하였다.



그림 1. 상황 언어, 상황적 프레임,
의사소통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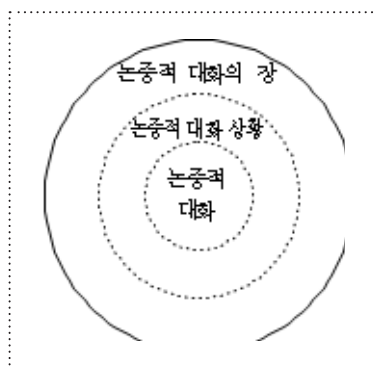


그림 2. 논증적 대화, 논증적 대화 상황,
논증적 대화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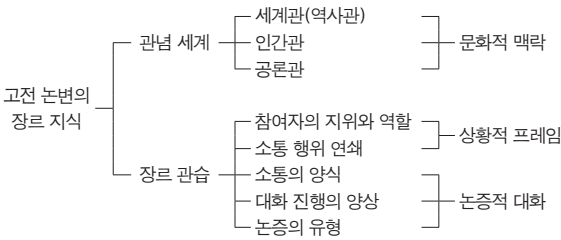
그림 2는 그림 1의 상황 언어 모형이 논변이 소통되던 논증적 대화 상황에 적용된 것이다. 이 그림에서 고전 논변 텍스트는 당시의 특정한 논증적 대화 맥락 안에서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던 논증적 대화가 된다.

사실 과거의 텍스트로부터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즉, 특정 상황에서 농담으로 의도된 발화가 상대에 의해 모욕으로 해석되는 경우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프레임은 담화 상황에서 맥락적인 표지로서 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으로 공유된다(엄훈, 2005, 각주 2 참조).

지난한 연구의 과정이 필요하다. 중세적 공론 논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엄훈(2005)은 중세적 공론 논변에 대한 장르론적 연구를 통하여 고전 논변이라는 장르와 그 장르 운용의 맥락을 장르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다(엄훈, 2005: 310). 고전 논변의 장르 지식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전 논변의 장르 지식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고전 논변은 해당 텍스트가 생산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된 조건에서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맥락이 면밀하게 재구성된 텍스트를 말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고전 논변은 흥미로운 문화 탐구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당대인의 관점으로 고전 논변을 읽는 경험을 통해 당대인의 합리성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문화적 텍스트 읽기를 통해 이루어진 중세적 논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시 우리 시대의 논변 문화를 비추어보는 거울이 되어 현대의 논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이르는 경험을 제공한다.

III. 고전 논변의 교육적 지평

필자는 국어 문화 교육의 재개념화를 통해 고전 논변 교육의 의의를 논

한 바 있다(엄훈, 2006). 이 글에서 필자는 국어과에서의 문화 교육을 ‘문화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기어츠의 문화 이론에 기댄 정의로서, 문화 행위에 대한 그의 중층적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확장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문화인류학자가 문화기술지를 통해서 하는 문화 해석 작업이나 미시적 생활사 연구자들이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왕래하면서 과거의 낯선 정신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작업을 인간 행위에 대한 현상적 기술과 중층적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국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문화 읽기 활동은 현상적 읽기(thin reading)와 중층적 읽기(thick reading)로 설명될 수 있다. 학자들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혹은 서류 더미를 뒤지면서 중층적인 유추 과정을 거쳐 문화를 해석한다면, 학생들은 국어 수업 시간에 교사에 의해 안내되는 ‘질문 - 추론 - 해석 - 재질문’의 과정을 통해 텍스트로부터 중층적으로 문화를 읽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해석적 문화이론의 핵심 개념인 중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이 문화 해석 과정의 한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문화 해석에는 문화 읽어 내기와 문화 기술하기라는 두 과정이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작용한다. 즉, 중층적 기술의 이면에는 언제나 문화적 현상에 대한 중층적 읽기(thick reading)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읽기와 쓰기 혹은 이해와 표현의 과정에 비추어 문화 해석의 과정을 중층적 읽기와 중층적 기술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화 해석의 개념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문화 교육의 개념은 국어교육 특히 읽기 교육의 본질에 부합한다. 이 정의는 지식으로서의 문화 자체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문화를 읽는 과정과 방법에 초점을 둔다. 문화적 텍스트를 통해 문화를 읽는 법을 익히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문화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문화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문화 교육의 정의가 고전 논변을 통한 국어 문화 교육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데는 여전히 동의하면서 필자는 조심스럽게 고전 논변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의 외연을 확장해 보려 한다. 문화 교육의 외연 확장은 논의의 출발점을 ‘국어 문화’가 아니라 ‘고전 논변’으로 잡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고전 논변은 그 자체가 문화적 지식의 저장고이다. 고전 논변 텍스트에는 당대인의 생활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당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적 지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전 논변이라는 문화적 텍스트를 통해 문화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문화적 지식 자체에 대한 교육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엄훈(2006)에서는 교과 교육의 틀 안에서 문화 교육을 정의하면서 문화에 대한 교육의 측면을 조심스럽게 배제한 바 있다. 그러한 교육은 다른 교과, 예컨대 사회과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 논변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교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고전 논변 교육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또한 가능하다면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과의 테두리를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다. 고전 논변이 정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한다면 그러한 가치를 교육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은 국어과가 되건 사회과가 되건 혹은 도덕과가 되건 상관이 없을 것이다.¹⁶ 오히려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둘 때 고전 논변의 교육적 가치가 더욱 다채롭게 실현될 것이다.

16 실제로 역사교육계에서는 중세적 공론 영역의 자료를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권태익 외(1994)는 근대 격변기의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이 글의 서두에서 예로 든 최익현의 ‘지부복궐척화소’를 비롯한 중세적 논변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다.

IV. 결어

최근 들어 고전 논변 작품들을 선별하고 소개하는 대중적인 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선비, 왕을 꾸짖다』, 『조선 아고라』, 『왕에게 고하라』, 『삼가 전하께 아뢰옵나니』,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등은 고전 논변 작품들을 대중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책이거나 고전 논변의 형식을 설명하는 책이다. 고전 논변을 소개하는 책들이 전문서가 아닌 대중 도서로 출판되어 널리 읽히기 시작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독자 대중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시대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중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중세의 언론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한다. 굳이 이러한 해석을 붙이지 않더라도 고전 논변 작품 선집이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은 고전 논변이 현대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가감 없이 보여 준다.

고전 논변이 정전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학문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고전 논변이 과거 오랫동안 정전의 위치에 있었고 오늘날에 와서 학교 교육과는 상관없이 다시 대중 출판물로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전 논변의 고전 정전으로서의 위상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본 논문은 2013. 2. 28. 투고되었으며, 2013.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3.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勉庵集』,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고전종합DB, 2011.
- 『重峰集』,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고전종합DB, 2012.
- 강상순(2011), 「고전소설의 근대적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권태억·류승렬·도면희·전우용(1994), 『근현대 한국탐사』, 역사비평사.
- 정상대 남명학연구소 편역(1995), 『교감국역 남명집』, 이론과실천.
- 김대행(1999), 「고전 교육」, 『국어교육학사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_____(2001), 「국문학의 문화론적 시각을 위하여」, 『국문학과 문화』, 한국고전문학회.
- 김종철(1999), 「한국 주류 산문의 문체 특성」, 『동방한문학』 16권 1호, 동방한문학회.
- _____(2001), 「문학교육의 문화론적 관점」, 『국문학과 문화』, 한국고전문학회.
- _____(2005), 「정전으로서의 『춘향전』의 성격」, 『선청어문』 3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태완(2004),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 김포문화원 편(2004), 『불멸의 증봉 조현』, 김포인쇄출판사.
- 김 향(1998), 「구한말 근대적 공문영역의 형성과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2009), 「식민지기 문학교육과 정전 논의」, 『문학교육학』 2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 민현식(2003), 「국어문화사의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0집, 한국어교육학회.
- 배수찬(2006),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용득(2010), 「문화 텍스트로서의 『밤으로의 긴 여정』」, 『드라마연구』 33호, 한국드라마학회.
- 송 무(1997), 「문학교육의 '정전' 논의」, 『문학교육학』 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 신두환(2009), 『선비, 왕을 꾸짖다』, 달과소.
- 엄 훈(2000), 「조선 성종대 토론 문화 연구」, 『국어교육』 103집, 한국어교육학회.
- _____(2005), 『조선 전기 공론 논변 연구』, 역락.
- _____(2006), 「고전 논변 텍스트를 통한 문화 읽기」, 『국어교육』 119집, 한국어교육학회.
- 우한용(1997), 「문학교육의 문화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93집, 한국어교육학회.
- 유영옥(2009), 「근대 계몽기 정전화 모델의 일변화 - 성균에서 영웅으로」, 『대동문화연구』 67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윤여탁 외(2006), 『국어교육 100년사 I』,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여탁(2008), 「한국의 문학교육과 정전: 그 역사와 의미」, 『문학교육학』 27권, 한국문학교육학회.
- 이기성(2009),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문화 텍스트 구성 방안: 분단의 문화를 중심으로」, 『언어와문화』 5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 한(2008), 『조선 아고라』, 청아출판사.
- 이호선(2010), 『왕에게 고하라』, 평단.

-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영우(1998), 『신국어 화법론』, 태학사.
- 조선어학회(1946-47), 허재영 해제(2011), 영인본 제1기, 『중등국어교본』(상), (중), (하), 역락.
- 조희정(2004), 「고전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구도」, 『국어교육학연구』 21집, 국어교육학회.
- _____(2008), 「고전 정전의 재검토」, 『문학교육학』 2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 홍서여(2005), 『삼가 전하께 아뢰옵니니』, 청조사.
- 檜山久雄, 정선태 옮김(2000), 『동양적 근대의 창출』, 소명출판.
- Geertz, C., 문옥표 옮김(1998), 『문화의 해석』, 까치.
- Habermas, J., 한승완 옮김(2001), 『공문장의 구조 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 Habermas, J., 한상진·박영도 옮김(2000),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 국가 이론』, 나남.
- Hall, E. T., 최효선 옮김(2000), 『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 Kuhn, T. S.(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1970), Logic of Discovery or Ppsychology of Research?, Lakatos, I. & Musgrave, A.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3.
- Lakatos, I.(1978),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Philosophical Papers Volume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urana, H. R., and F. J. Varela, 최호영 옮김(1995), 『인식의 나무』, 서울 : 자작아카데미.

고전 논변의 교육적 재발견

엄훈

조선시대의 고전 논변은 당대에 살아있는 장르로서 실용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정전의 전환 이후 고전 논변은 실용적으로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죽은 장르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정전 전환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동반한 서구 문명의 급격한 도래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자기부정과 수용을 통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해방 이후의 정전은 민족 문학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정전 전환은 점진적·성찰적·계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급진적·배제적·단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민족주의적이고, 반중세적이며, 서구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정전 전환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정전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고전 논변은 정전의 지위를 잃었으며 우리의 고전 교육에서 전통적인 논변 문화는 빈자리로 남게 되었다.

고전 논변의 빈자리 현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전 전환의 과정에 대한 성찰과 함께 그것이 현재의 교육에서 지니는 의의와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고전 논변이 현대에도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는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가치이며 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접근 방법은 문화 읽기로서의 고전 교육이다.

핵심어 고전 논변, 고전 교육, 정전 전환, 문화적 텍스트, 문화 읽기로서의 문화 교육, 문화에 대한 교육

ABSTRACT

Educational Rediscovery of Korean Classic Argumentation

Um, Hoon

This research aims to reveal the educational value of Korean classic argumentation in light of classic education. The classic argumentation in Joseon dynasty had been a communicative genre which had important function practically and educationally. But afterward from the modern times, the classic argumentation genre was dead in both practical and educational meaning. This phenomenon is worth inquiring from the viewpoint of canon shift. In the modern times of Korean history, the medieval canon had been shifted to modern canon very abruptly. In the process, the educational value of Korean classic argumentation has been denied without serious deliberation.

This research inquires the process of the classic argumentation genre's losing its status of canon and proves the incompleteness of modern canon shift. This research also discusses the meaning and potentialities of the classic argumentation. It has the value of cultural text in which students can read cultures as part of the cultural education.

KEYWORDS Classic Argumentation, Classic Education, Canon Shift, Cultural Text, Cultural Education as Culture Reading, Education on Culture